

기아차 62만대 증산 최종합의·금호타이어 무분규 임단협 합의 '상생 노사' 광주경제 재도약 발판

광주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를 최종 타결하고, 금호타이어도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지역 경제계가 모처럼 활짝 웃게 됐다. <관련기사 8면>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는 27일 광주 2공장에 투입되는 인원 협의를 최종 합의하고, 419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큰 채용 규모로, 신규 직원은 7월 중순경 2공장에 전원 배치된다. 지난 7월 2공장 증산 UPH(시간당 생산 대수)

를 58UPH로 확장한 뒤 20일 만이다. 이번 인원 협의를 통해 지난 2011년 12월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프로젝트 발표 이후 19개월 만에 기아차 광주2공장 증산은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광주공장은 현재 46.1UPH인 2공장의 생산라인을 노사가 합의한 58UPH까지 단계별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총 3000억원이 투입된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는 이에 따라 공장 하계휴가가 예정된 7월 말 이전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단체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사는 전날 열린 제12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8% 인상을 요구했지만, 2010년 체임단에 제출한 노사동의서와 자구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동결 원칙의 준수를 위해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또 회사는 지난해 경영실적 개선과 사원들의 협력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월 지급된 설 격려금을 포

함, 월평균 급여의 228% 수준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최우선 과제인 워크아웃 졸업과 2013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사는 워크아웃 졸업과 동시에 반납 임금 및 복지 수준을 환원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설비투자 및 신규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호타이어 미래 비전' 합의문을 작성했다. 노조는 오는 27~28일 단체교섭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에 이어 찬반 투표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

姜 "10대현안 완수...시민주권 시대 실현" 朴 "친환경 농업·바다경영·기업유치 가속"

강운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지사 민선5기 4년차 회견

강운태 광주시장은 27일 민선 5기 4년차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1년은 시민주권 시대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3면>

강 시장은 "지역사회 갈등이 예견되거나 시민 전체 의견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된 행정체제를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시민의 역할한 사례, 불공평한 사례 등을 해결해 주세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공공체 도약 10대 과제로 ▲2019 세계수업선수권대회 유치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5년 개관 ▲광주~서울 KTX 2014년 완공 ▲5월 역사 선양 및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본격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기반 마련 ▲친환경

에너지 시범도시 추진 ▲광주은행 지역환원 및 상품(금)거래소 유치 ▲일자리·수출·성장 등 경제공통체 도약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며 임기내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 시장은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런닝메이트제 도입의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맞지 않아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같은 교육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런닝메이트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민선 5기 4년차 기자회견을 갖고 "낙후된 전남의 후손들을 위해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크고 작은 섬과 풍광한 일조량 등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 도정 역점방향으로는 ▲친환경 농업의 중단없는 추진 ▲미래 식량보고 바다경영 지속 ▲기업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국제행사 개최와 성장잠재점 개발 등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최근 중국 기업들과 15억 달러 규모의 MOU(투자협약 이행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내 카지노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카지노가 아니라 세계적인 차이나타운 건립이고 이를 위한 호텔이나 주택 등 다양한 구상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카지노는 J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검토해 볼 문제로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아이템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선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ju@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반도 비핵화 공감 6자회담 재개 노력" 한·중 정상회담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3박4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 대통령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 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올해로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의 이러한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는 등 역대 한중 정상회담의 원칙적 수준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를 넘어 사실상 북핵 개발과 보유가 한중 양국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만큼 이의 포기에 공동 노력을 경주한다는 데 공감대를 도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양국정상 청년대표단 점견 행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함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추경시효 2020년까지 연장·가족 추징 가능

추징법 본회의 통과... '임을 위한...' 결의안도 처리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법안은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가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서 추후에 '찬성'으로 정정했다. 새누리당 심학봉·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다. 법안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다.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원이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재석 200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국회 결의안을 존중한다"며 "이를 계기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본격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과 반대측 의견까지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6월 24일(화) ~ 28일(금)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The New E-Class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 / Tel. 062)226-0001

경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01 191cc, 163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0km/ℓ(도시연비 10.5km/ℓ, 고속도로연비 14.6km/ℓ),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45g/km • E 220 CDI 2143cc, 1780kg, 자동7단, 복합연비 16.3km/ℓ(도시연비 14.2km/ℓ, 고속도로연비 19.8km/ℓ), 1등급, 복합CO₂배출량 120g/km • E 250 CDI 4MATIC 2143cc, 1845kg, 자동7단, 복합연비 14.2km/ℓ(도시연비 12.8km/ℓ, 고속도로연비 16.4km/ℓ),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9g/km • E 300 3498cc, 1735kg, 자동7단, 복합연비 10.3km/ℓ(도시연비 8.9km/ℓ, 고속도로연비 12.7km/ℓ), 4등급, 복합CO₂배출량 172g/km • E 350 4MATIC 3498cc, 1805kg, 자동7단, 복합연비 9.2km/ℓ(도시연비 8.2km/ℓ, 고속도로연비 11.1km/ℓ), 5등급, 복합CO₂배출량 192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